

무엇이 되냐가 아닌 어떻게 사느냐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그 마약이 바로 눈앞의 나의 자녀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인 가정의 자녀들의 마약의 심각성은 이제 극에 다다르고 있는것이다. 마약복용의 시작평균 연령이 12, 13 세로 낮아진것도 충격적이며 명문대학에 잘보낸 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중 마약중독으로 인해 퇴직당하는 케이스가 한인사회에 늘고 있다. 지난 한주도 4 케이스가 심각한 마약중독으로 명문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기가 막힌 경우들이었다. 소중한게 잘키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어떤 끔직한 경험을 했고 그로인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지에 대해 한인 부모들은 무지할정도로 알지 못한다. 한경우는 좋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립대에 무난히 들어가 대학의 수많은 동아리중 머저리같은 일을 시키는 동아리에 들어가(부유층의 자녀들로 공부도 꽤하나 마약을 복용하며 선배가 신입생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끔찍한 일을 시키는) 술을 꼭지가 돌도록 먹이기도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게도 심지어는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8-10 시간을 끌고 다니는 시험아닌 시험을 치루게 하여 동아리에 합격시키고는 그후로 그 대학생활동안 무섭게 기강을 잡는데 심지어는 공부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며 정신집중을 위해 신경안정제인 마약을 복용시켜 습관성마약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그는 가족이나 주위의 친지보다는 그 동아리 집단에 집중하는라 사회생활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또다른 케이스는 여학생으로서 들어간 동아리에서 신입생 신고식에 헤비드럭을 복용하게하고는 보기에도 끔직해보이는 시빨건색과 검은색으로 수상쩍은 그림의 큰 보자기를 바닥에 펼쳐놓고 고개를 거기에 쳐박고 악을 쓰며 주문을 외우게 하는데 그소리가 차마 듣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끔직한 비명섞인 무서운 소리인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 신입생은 그렇게 곱게 이쁘게 자랐건만 대학 졸업도 미뤄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한 인생으로 그렇게 망가져 갔다.또다른 경우인 맨한탄의 명문대학에 들어간 예쁜딸은 음침한 분위기의 기숙사에서 마약 주사바늘을 꽂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검은 가죽의 타이트하고 짧은 옷을 입히고 신체에 가학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그 동아리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부모에게 쉬쉬하며 부모가 접근도 못하게 한다. 또다른 케이스는 동아리를 통해 마약과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서글프고 비참한 어른이 되어버린것이다. 이외의 비슷하게 끔직한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이케이스들의 공통점중의 하나가 부모들에게는 절대 비밀이며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것이다. 한인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우선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는가 라는것 이어야한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부모의 삶과 가정의 내용에서 만들어진다. 즉 자녀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목표가 있어야하며 그것은 고사하고 라도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행복감이 있어야한다. 가치관은 그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들어져있으면 무엇을 해도 그자녀의 인생은 건강할수밖에 없다 무엇이 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심어준다면 한인사회의 똑똑한 2 세들이 그렇게 스러져가는 일은 없을것이다.